

▶ 오늘부터 22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서 국립무형유산원 특별 사진전

움직임... 고요... 동정... 전시장에서 한눈에 느끼다

전주 전당리 백중술매이·국궁
남원 삼동굿놀이·당진 용대기 등
올해 무형유산도시에 선정된
전주·남원·충남 당진에
숨은 지역 유산담은 기록 선보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김정남)은 '움직임과 고요, 동정' 사진전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전주교동아트미술관에서 연다. 사진전은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에 선정된 당진(2015)·남원(2016)·전주(2017)의 숨어 있는 무형유산의 발굴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 이들 지역민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순간의 기록 47점을 선보인다.

예향의 도시로 불리우는 전주시는 맛과 예술의 고장이다. 이번 전시에선 전당리 백중술매이, 전주국궁, 전주대장장이, 전주대사습놀이, 전주패백음식, 부채도배, 여성농악 등의 사진을 담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춘향가'의 탄생지인 남원시는 예부터 무형유산의 보고로 알려진 곳. 이번 사진전에는 연고 없이 홀로 죽은 이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사 지내는 관행인 외톨이제사, 남원 괴양리에서 매년 백중(음력 7월 보름날) 행사 때 지네의 해를 막기 위해 펼치는 삼동굿놀이, 남원의 방구부채를 소개한다.

충남 당진시는 충청도와 경기도를 잇는 거점도시로, 바다와 땅의 풍요로움을 담은 무형유산으로 가득하다. 용대기, 용기, 장복기 등으로 불린 당진의 농기와 농기문화, 만선을 이루고 돌아오는 어부들이 뱃전을 두드리며 기쁨을 담아 부른 배치기 소리, 한국 천주교 전통이 만들어낸 독특한 무형유산으로 우리 전통 음악 어법으로 구성된 천주교 상징곡 노래 등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사진전에는 전주의 여성농악을 포함한 총 13종목의 지역 무형유산을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다"면서 "무형유산도시의 지역별 특색을 종합적으로 담아 제작한 영상은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시장 벽면의 삼면에 스크린으로 띄워 관람객은 무형유산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시를 소개했다.

사진전과 영상 관람은 무료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 063)280-15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전당리 백중술매이 중 풍물놀이 →



남원시 삼동굿놀이 현장 →



당진시 함덕읍 허궁원리 용대기 (1911년 제작) →



세만금상설공연 '해적',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서 선보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이 제작·운영하는 세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3 '해적'이 2017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초청으로 12일 오전 10시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오프닝 작으로 공연된다.

2017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도내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문화교류 증진 및 전북지역 유학의 자부심 고취 그리고 문화전복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축제로 전북문화관광재단과 도내 5개 선도대학의 첫 문화 교류이다.

이날 공연에는 도내 5개 선도대학을 포함한 전국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참여 대학 유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적은 고군산군도의 설화와 한국의 전통예술이 절묘하게 융합된 작품이다. 이는 대사 없이 몸짓과 표정 그리고 안무로만 진행되는 '넌버벌뮤지컬'로 외국인 유학생이 관람하기에는 제격이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이번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전북 개최를 축하하며,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아리울스토리3 '해적'을 통해 전북이 가진 문화의 힘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한국청미회전, 전북예술회관 기스락에서 내일까지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회장 이봉화)는 전북·영남지역 청각장애 회원들의 작품으로 꾸미는 '한국청미회전'을 전북 예술회관 기스락에서 오는 12일까지 갖는다.

이번 전시엔 남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집념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자·김연희·김예환·김정미·남기운·박양수·박영옥·박인희·박진·방두영·손명국·이명상·이봉화·이상점·이성기·이순옥·정순영·조문

호 등 전북작가와 신혁주·김리나·박태숙·송진현·문성국·이교광·이경미·우영총 등 영남작가가 참여했다.

이들 작가들은 일상에서 느낀 감정과 사색을 그림에 담았다.

이봉화 회장은 "회원들은 창작활동의 불편함 속에서도 미술이 좋아 묵묵히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위로받는 이들의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판소리 명인들 고창에 총집결

대한민국 판소리축제, 14일부터 이틀간

동리 신재효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통문화와 소리를 테마로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고, 이를 보전해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문화계승 축제인 '대한민국 판소리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고창읍성 앞 특설 무대 및 동리국악당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명인·명창들이 만드는 예술의 진수가 펼쳐지는 2017 대한민국 판소리축제는 명창 송순섭, 명창 신영희, 명인 이상강, 명인 송원조, 명창 김일규, 명창 정순임, 명인 김무길, 명

창 조봉달, 명인 신규식, 명인 박봉서, 명창 유영애, 명창 김영자, 명인 원장현, 명창 이난초, 명창 왕기석, 명인 이태백 등이 출연해 판소리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대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판소리 축제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판소리가 대중들에게 더욱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고, 신재효 선생에 대한 재조명과 판소리의 문화예술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 이영근